

한국의 사찰현판 2  
신대현 지음  
도서출판 해안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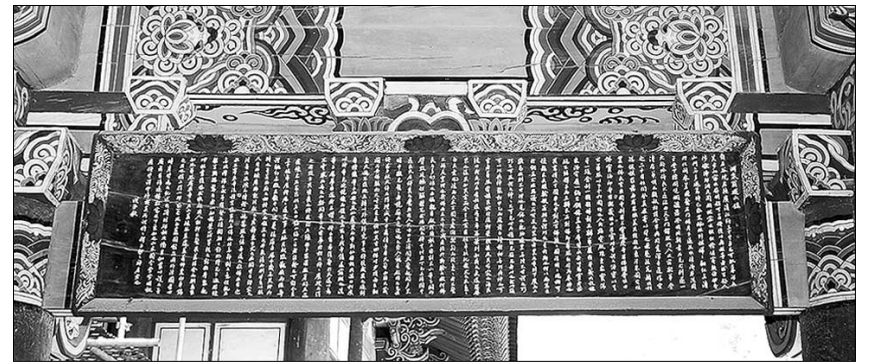
# 현판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상

### 신록사 범어사 등 30여 고찰 현판 번역·해설 무관심 속에 방치된 역사자료 복원 의미 깊어

‘대웅전에 들어가 보니 여러보살들을 봉안하고 있다. 불어(佛牙) 한쌍, 사리 1과, 삼존 불이 새겨진 원불, 화엄경 6권, 가족으로 만든 육십을 신발 한 켤레, 등으로 만든 발우 50개등 영원토록 보물로 전해져야 할 것이다.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 감상하였다.’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이자 고위관료였던 홍석주(1774~1842)가 송광사를 방문한 뒤 1828년(순조 28)에 지은 <조계산 송광사 유산록>이라는 현판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판은 신문이나 잡지가 없었던 당시, 사찰을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매체였다. 하지만 현판은 다양한 내용과 표현의 자유스러움으로 인해 비석에 새긴 정

제된 금석문과 달리 공적인 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문으로 돼있어 해독이 어려워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한낱 나무조각으로 치부되는 현판의 내용을 해석하며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느끼는 맛에 푹 빠져 있는 신대현 박사(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가 <한국의 사찰 현판>을 펴냈다. 이 책에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인 30여 사찰의 가치높은 현판의 내용과 번역, 해설이 실려있다. 책을 보면 현판이 이제껏 우리가 알아왔듯이 단순하게 절의 중수에 관한 이야기나 자

화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현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시 스님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상, 현대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조선 후기 문신이며 의정부 종1품 좌장성을 지낸 김병기(1818~1875)는 조상대대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신록사의 증건과정을 기록한 <신록사 중수기>(1860년 작)에서 ‘사찰의 흥폐는 세상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이며, 따라서 유학자들이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레도 두 가지 이유에서 폐사 되어서는 안되는 절이 있다. 고적의 오래됨이 그 하나요, 두 번째는 주변의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라고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1698~1761)는 사찰의 중수기가 아니라 부산 범어사의 <설송당대사비명>(1754년 작)



송광사 '연천옹 유산록' 현판의 모습.

이라는 설송연초 스님의 행장을 적고 있다. 행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현시에는 ‘도(道)란 본래 움직임을 고요함도 없는 것, 마치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서와 동을 고루 비춘다네. 오로지 설송 스님의 심법이 선과 교 두 법문을 하나로 아울렀다오’라며 스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된 <불영사 중창기>(1611년 작)를 지은 황중윤(1577~1648), <여제시판서>(1722년 작)를 지은 채팽윤(1669~1731), <대성암 화약대사 진영>(1850년 작)의 김경희(1786~1859)등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나

문신들이다. 이들의 글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불교와 유교가 대립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층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교류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신대현 박사는 ‘아직까지 사찰 현판을 찍어 읽는 기관이 나서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고, 사찰 역사 수집점 이상씩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술검토 및 공개를 한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교자료가 부족한 만큼 이제라도 현판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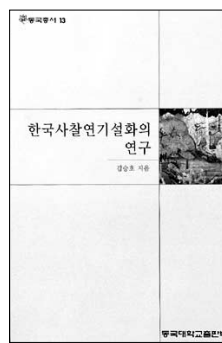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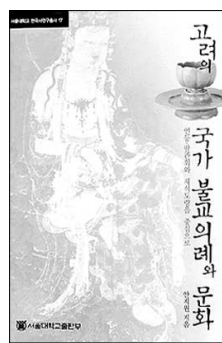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새로나온 학술서 2건

### 고려때 왜 불교의례가 많았나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안지원 지음 | 서울대출판부 | 1만6000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례들이 왜 빈번하게 열렸을까. 최근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라는 책을 펴낸 안지원(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후 지역에 관계없이 민심에 밀착된 불교를 공통분모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기인한다”고 답한다. 즉 고려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훈(遺訓)으로 남긴 ‘홍요십조’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례화 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안 교수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추수감사제와 같은 농경의례의 성격과 역사성이 있는 토속적인 축제가 포용되고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기획되어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형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행사는 단순한 축제로 그치지 않고 의례절차 속에 국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지배집단을 상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고려왕실의 권위도 높이고, 국왕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공헌하는 반대급부도 노렸음을 이 책은 밝힌다. 안지원 교수는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궤도를 같이하여 고려문화의 제 양상을 반영하고 변화하면서 고려와 함께했다”며 “이 행사들은 고려의 기층문화가 되었고 조선이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우리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삼국유사에 빛진 사찰 연기설화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김승호 지음 | 동국대출판부 | 1만4000원

동국대 국어교육과 김승호 교수가 10여년간의 작업끝에 <한국사찰 연기설화의 연구>를 간행했다. 이 책에는 사찰연기설화의 개념에서부터 그 자료적 범위, 미학적 성격, 시대적 흐름, 담양층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로 사찰연기설화의 면모를 살폈다. 특히 김 교수는 사찰연기설화의 연구가 <삼국유사>에 매달리는 식으로 진행된 점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유사 소재 사찰 연기설화의 대부분이 사찰을 창건한 얘기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다 원래 설화의 이기(異記)임을 확인할 수 없는 마당에 계속 그것을 인용할 경우 사찰연기설화의 일반적 특성까지도 놓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승려와 승단을 여과없이 공박, 회화화하는 폐사연기설화까지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폐사의 원인을 민중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책의 구성은 1부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이해를 돕는 사찰연기설화의 총체적 조망, 2부 사찰연기설화의 각론적 접근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2부는 서사성이 높은 몇몇 고찰의 연기설화에 나타난 소설적 성격과 그 의미를 타진하는 연구물도 포함하고 있다. 김승호 교수는 “이책에 소개된 폐사 연기설화의 경우 창사 및 연기 개념과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 역시 민중들 사이에 사찰의 최망진단이자 내력임을 감안하여 사찰연기설화의 하위갈래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지친마음 위로하는

### 샘물같은 이야기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 외모에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아름다움은 이목구비의 조화만으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은근하고 품위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아픈 어린이들이 ‘작은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목 스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하며 청취자들을 울렸던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마음밖으로 걸어가라>는 1장 사랑, 2장 용서, 3장 이해, 4장 행복, 5장 감사 등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샘물같은 이야기 100여편이 실려 있다. 이 책에 실린 조건에는 사랑을 하는법, 미운 사람 용서하기, 이해하기, 행복지수를 높이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의 방법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충분하다. 정목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일생의 서원이고 그들의 아픔이 사라진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며 “아픈 어린이들이 일어서는데 이 책이 작은 힘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음밖으로 걸어가라  
정목 스님 지음 | 랜덤하우스 중앙 | 9800원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 류상태 지음 | 인물과 사상이 | 8500원

### 어른들은 왜 종교 때문에 싸울까 청소년 종교입문서

만일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마을사람 33명이 기독교(가톨릭 포함),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는다. 5명은 나무나 바위같은 모든 자

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교이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기기도 하지만 종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마을사람 모두가 공평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04년 10월 대공교 강의를 수강한 사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한 류상태 실행위원(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 청소년을 위한 종교이야기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를 펴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왜 종교를 알아야 하는

지, 종교를 만나는 즐거움은 어떤 것인지, 같은 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모습, 종교를 통해 세계사를 보는 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 부분 ‘종교가 화합할 길은 없는가?’에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대한 ‘이웃’이며, 또한 인류와 세계의 희망을 위해 공헌해야 할 공동의 숙제를 안고 ‘함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임을 강조한다. 김원우 기자

### yosiamun.com 추천도서

- 21세기 부자의 메세지 현지공현지사, 자재민현스님, 1만5000원
  -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철우스님, 8500원
  - 섬세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도솔, 능형스님, 95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스님, 3500원
  -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치, 월호스님, 98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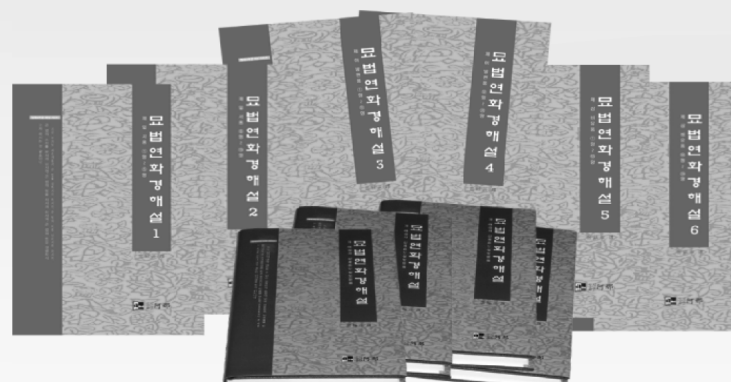
#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法)』과 『세간법(世間法)』과 『근본진리의 법(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무량의경 I / II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문 / 방편문 / 비유문 / 관세음보살보문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초월(超越)의 문(門)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앞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신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一法)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세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